

내년 프로야구 4월 3일 개막... 비디오 판독 범위 확대

퓨처스리그는 5월 5일... 각 구단 2월부터 스프링캠프 자율 시행
부상자, 최소 10일 지나야 엔트리 재등록... 2차 드래프트 폐지 보류

2021년 KBO리그가 4월 3일 개막한다. 각 구단은 2월 1일부터 자율적으로 스프링캠프를 갖고 새 시즌을 준비한다.
KBO가 16일 제7차 이사회를 열고 2021년 KBO 리그 경기일정 편성안과 리그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2021시즌 개막일은 4월 3일 토요일로 최종 확정됐다.
개막 경기 하루 전 제출하는 개막전 엔트리 마감 시간은 팬들의 관심을 반영해 오후 5시에서 오후 3시로 앞당겼다.
올 시즌에는 코로나19 여파로 KBO리그 출범

이후 가장 늦은 5월 5일 리그가 시작됐다. 늦은 개막에도 KBO는 리그 중단 없이 팀 당 144경기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퓨처스리그는 4월 6일 화요일 개막해 올 시즌과 같은 605경기를 치른다. 시즌이 끝난 뒤에는 제주도에서 퓨처스리그 교육리그를 개최하기로 했다.
새 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는 2월 1일부터 가능하다. 이사회는 구단이 자율적으로 스프링캠프 일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 판정 논란을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가 확대된다.

비디오 판독이 새로 적용되는 플레이는 ▲공식 야구규칙 5.08(a)에 의거한 3아웃 이전 주자의 득점 ▲주자의 루의 공과 ▲주자의 선행주자 추월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기 위해 태그업 할 때 일찍 했는지에 대한 심판의 판정 등 네 가지다.
부상자 명단 제도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졌다. 부상자 명단 제도는 부상 선수들의 등록일수를 보장하며 충분한 회복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 이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완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부상자 명단(10·15·30일)에 등록된 일자로부터 최소 10일이 지나야 엔트리에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부상자 명단 등재 신청서와 진단서는 해당 선수의 엔트리 말소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도

록했다.
홈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은퇴 경기에 한해 1군 엔트리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은퇴 선수의 추가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규시즌 중 경기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날의 현역선수 등록 및 말소 마감 시간은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평일 경기와 동일하게 오후 4시 30분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감독·코치 외에 포수가 마운드에 방문할 때도 선수 간 작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2차 드래프트 폐지는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KBO 10개 구단 단장들은 실행위원회를 열고 2차 드래프트 폐지 안건을 이사회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2차 드래프트가 리그 전력 평준화와 퓨처스리그 선수들의 출전 기회 부여라는 취지에서 마련

됐지만, 특정 구단 유망주의 과도한 유출과 지명 인원 감소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선수들은 폐지안에 반발하며 개인 SNS를 통해 드래프트 폐지 반대 의사를 밝히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선수들은 "2차 드래프트는 구단 내 출전 기회가 없는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제도다. 선수의 권익 향상을 위해 폐지를 재검토해줄길 바란다. 보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연봉, 저연차 후배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원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이사회는 선수 현행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한 뒤 도입 취지에 맞게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 다음 실행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모리뉴 "토틀넘은 손흥민 원해"

감독 기자회견... 재계약 질문에 잔류 희망 의사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틀넘 홋스퍼의 조제 모리뉴 감독이 이 팀과 한국 축구 팬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손흥민(28)의 재계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모리뉴 감독은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를 하루 앞둔 15일 영국 런던의 토틀넘 홋스퍼 트레이닝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팀에 남고 싶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손흥민이 구단과 재계약에 근접했는지를 묻는 말에 "나는 손흥민과 대니얼 레비 회장을 믿는다. 손흥민과 레비 회장 모두가 잔류를 바라고 있다"며 "(두 사람은) 아마 가능하다면 손흥민이 평생 토틀넘에 남기를 바랄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리뉴 감독은 그러나 재계약을 '속단' 하지는 않았다.
그는 "한 선수와 재계약을 고민할 때는 다음 시즌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해야 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게 맞는지 불확실할 때가 많다"면서 "지금은 아주 예민한 시점"이라고도 말했다.

모리뉴 감독은 자신이 재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만큼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구단이 애제자이자 공격 '1번 옵션'인 손흥민을 꼭 붙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손흥민과 토틀넘이 재계약 협상에 들어갔다는 현지 보도가 지난 10월 나왔지만, 이후 구체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2015년 토틀넘에 입단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감독 시절부터 꾸준히 성장한 손흥민은 모리뉴 감독 부임 2년 차인 올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을 기세다.
아직 2020-2021시즌 일정을 절반도 소화하지 않았지만, 벌써 리그 10골, 공식전 13골을 기록했다.
자신의 리그 최다 14골(2016-2017시즌) 공식전 최다 20골(2018-2019시즌) 기록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손흥민의 빠른 발과 고강도 슈팅이 선수비 후역습의 모리뉴 전술에 잘 들어맞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양보 못해” 16일 영국 모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울버햄튼 원더러스, 첼시 선수들이 공중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백승호, 2도움 '눈도장'

독일 분데스리가 2부리그... 다름슈타트, 튀르겐 4-0 승리

독일 프로축구 2부 분데스리가 다름슈타트에서 뛰는 백승호(23)가 도움 2개를 올리며 팀의 완승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백승호는 이번 시즌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다름슈타트는 16일 독일 튀르겐의 슈포르트파르크 룬호프 토마스 쾰머에서 열린 그로이터 튀르겐과 2020-2021 2부 분데스리가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4-0으로 완승했다.
2연패를 끊은 다름슈타트는 승점 15를 쌓아 13위로 올라섰다.
이날 4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한 백승호는 팀이 1-0으로 앞선 전반 45분 세르दार 두르순의 추가 골을 도왔고, 후반 4분에도 두르순과 골을 합작해 팀의 승리를 도왔다.
다름슈타트는 전반 17분 팀 스카르케가 원발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 결승 골을 뽑아내 1-0으로 앞

섰다.
전반 45분에는 백승호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상대 수비를 제치고 크로스를 올렸고, 두르순이 골 지역으로 달려들며 마무리해 튀르겐과 격차를 벌였다.
백승호는 정규리그 8경기 만에 이번 시즌 첫 공격포인트를 작성했다.
후반에도 백승호와 두르순 콤비가 추가 골을 기록했다.
후반 4분 백승호가 다시 한번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두르순이 골문 앞에서 오른 발로 가볍게 차 넣었다.
다름슈타트는 후반 31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이마누엘 힌의 헤딩 췌기 골로 4-0 승리를 챙겼다.
특목히 활약한 백승호는 후반 37분 아론 자이델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아데토쿰보 'NBA 연봉킹'

역대 최고 2500억원에 재계약

미국프로농구(NBA) 밀워키 벅스의 '괴인' 야니스 아데토쿰보(26·그리스)가 사상 최고액에 장기 재계약에 성공했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16일 아데토쿰보가 밀워키와 5년간 연봉 총액 2억2820만 달러(약 2497억6000만원)에 재계약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NBA 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다. 이전까지는 2017년 제임스 하든(31)이 휴스턴 로키츠와 6년간 총 2억2800만 달러(약 2495억4000만원)에 재계약한 게 최대 기록이었다.
내년 여름 계약이 끝나는 아데토쿰보를 붙잡기 위해 밀워키는 '슈퍼맥스' 계약을 감행했다. 슈퍼맥스란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은 얻는 소속팀 선



수에 NBA 규정상 줄 수 있는 최고액을 안기는 것을 뜻한다.
201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5순위로 밀워키에 입단한 아데토쿰보는 매 시즌 큰 폭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리그 최고 선수 중 하나가 됐다. 2016-2017시즌부터 4시즌 연속 올스타에 선정됐고, 지난 시즌에는 사상 12번째로 2시즌 연속 정규리그 MVP로 뽑혔다. 또 마이클 조던, 하킴 올라주윈에 이어 정규리그 MVP와 올해의 수비수상을 함께 받은 3번째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영암씨름단 최정만, 생애 13번째 금강장사

'정읍 민속씨름리그 왕중왕전' 라이벌 이승호 3-2 꺾어

명실상부한 금강급 강자 최정만(30·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왕중왕전까지 제패했다.
최정만은 16일 전북 정읍시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계약 2020 정읍 민속씨름리그 왕중왕전' 금강급(90kg 이하) 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라이벌' 이승호(34·수원시청)를 3-2로 물리쳤다.
앞서 7월 단오 대회와 지난달 평창 대회(3차)에서 금강급 우승을 차지한 최정만은 올해 3관왕을 달성하며 개인 통산 13번째로 금강장사에 올랐다.
8강에서 배경진(정읍시청), 4강에서 문형석(수원시청)을 꺾은 그는 결승에서 '금강 트로이

카' 중 한 명인 이승호와 만났다.
금강장사 8회, 통합장사 1회를 지낸 이승호는 통산 10번째 장사 타이틀에 도전하는 동시에 은퇴하는 수원시청 고흥군 감독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길 참여했다.
강자 간 대결답게 결승전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첫판 최정만의 연속 발다리 공격을 막아낸 이승호가 잡채기로 한 점을 챙기자 최정만은 두 번째 판에서 발다리결기에 성공해 균형을 맞췄다.
세 번째 판에서는 두 선수가 치열하게 기술을 주고받은 끝에 연장전까지 이어졌고, 최정만이 등채기로 2-1로 역전했다.



이승호는 곧바로 잡채기로 다시 점수를 챙겨 2-2로 맞섰다. 마지막 판, 최정만이 주먹기인 발다리로 이승호를 모래판에 눕히고 우승을 확정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